

눈높이 맞춘 새로운 군포교 기대

육군 7군단 군불교발전협 창립

3개 지역 사원연합회가 주축이 된 군불교 지원단체가 불교계 최초로 결성돼 주목된다.

이천사원연합회(회장 해봉, 용화사), 여주사원연합회(회장 법성, 법전사), 양평사원연합회(회장 화암, 사나사가) 힘을 합쳐 육군 제7군단을 지원 하는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공동의장 해봉·법성·화암)를 3월 5일 창립했다.

지금까지 군불교 지원단체들은 지역 사찰에서 군법당을 지원하는 식이 대부분이어서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에 거는 불교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7군단 전체 예하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스텝화된 지원을 결의했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 3개 사원련은 2004년 10월 1일 여주 신복사에서 1차 모임을 가진 이후 각 지역 사찰을 다니면서 7차례에 걸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임원진, 회칙 정관 등이 구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천 여주 양평 사원련 연합 결실

지원체계 구축·다양한 활동 계획

성됐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창립과 더불어 2005년 첫 번째 사업으로 군법사가 상주 하는 7군단 호국상사, 수도기계화사단 호국연호사, 20사단 호국독도사, 60여단 호국홍국사, 항공작전사령부 호국비승사 등 5곳에 올해 안으로 300만원 상당의 빈포로젝

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창립으로 이천 여주 양평지역에 위치한 법당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7군단 군불교발전협의회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세대적 감각에 맞는 포교·지원의 다양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선웅 스님은 "새로운 형태의 군포교 지원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포교원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육군 제7군단 호국상사사 주지 경연수 법사도 "3개 지역 사원련이 군불교 포교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군불교발전협의회 창립을 이끌어내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군불교 지원단체가 속속 결성돼 전국적으로 군불교 지원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제주 법화사 구화루 복원



이번에 복원된 법화사 구화루 전경.

제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법화사의 누각인 구화루가 복원됐다.

법화사는 최근 구화루 복원불사를 마치고 3월 30일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완공된 구화루는 2층 110평 규모로, 고려건축을 대요하는 부석사 무량수전 양식을 본떠 건축되었으며, 겹처마에 팔작 지붕 형식을 띠고 있다. 기단 및 들기둥은 제주산 조면암을 사용했다.

이번 구화루 복원은 법화사가 수정사와 함께 고려 후기 제주를 대표하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미 대웅전 복원을 마친 법화사는 내년까지 선방과 승방을 복원하고 유물관을 지어 법화사 복원불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송산노인복지관 개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이 3월 7일 본격적 운영을 시작하고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700평에 하루 이용인원 700명을 예상하고 있는 송산노인복지관은 앞으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 교육실은 물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지역 노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꾸려갈 계획이다. (031)852-2595 김강진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고양 광명사

아낌없이 주니 불법 홍포 절로



광명사 기도법회 모습. 광명사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어엿한 기도도량이자 도심포교당으로 자리잡았다.

참 특이한 절이다. 스님도 그렇다. 유흥가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퍼주기 바쁜 스님도 그렇고, 테마별로 열리는 법회 형식도 그렇고...

나한기도도량인 경기 고양 광명사. 빌딩 7층에 위치해 있어 일반 사찰처럼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일대 사람들 중에서 광명사를 모르는 이는 없다.

광명사(주지 대덕)가 이곳에서 개원한 것은 2003년 5월. 서울 신촌에서 홍제포교원을 운영하던 대덕 스님은

은 일산병원 등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무료염불봉사를 벌였다. 경기 전곡에 위치한 26사단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군포교에도 나왔다. 매달 법당은 영비를 지원하고 푸짐한 선물도 전달했다. '무조건 주는 포교'는 그렇게 계속됐다.

광명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회시 한글의식도 병행했다. 기도 형식도 파격적으로 변화시켰다. 108일 지장기도는 발원·참회·소원성취·감사·회향 기도 등 5개 테마로 나누고 각 테마별로 내용이 다른 발원문을 업

불우이웃·관공서 등에 '사랑의 떡 나누기' 펼쳐 한글의식, 발원·참회 등 5개 테마 기도 큰 호응

누가 보더라도 포교당이 위치하기에 는 적합지 않은 이곳을 도량으로 선택 했다. 그리고 '공격적인 포교'를 시작했다.

작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광명사는 인근 공원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작은 떡이며, 과자며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작은 연꽃등을 하나씩 손에 들려주었다. 어려운 이웃이나 병든 이웃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다주면 무조건 등도 달아 주었다. 아파트촌을 돌며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도 벌였다.

지장기도, 나한기도 등 기도회할 때 마다 경찰서, 동사무소, 소방서, 노인정 등을 돌며 떡도 돌리고 후원금도 지원했다. 신도들로 구성된 원왕생팀

송토록 하면서 기도하도록 했다. 한 달에 한 차례 불교대학도 열어 신도교도 강화했다. 그러자 광명사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자연히 신도도 늘기 시작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잘나가는 도심포교당'이 되기까지는 주지 대덕 스님과 불교잡지 <세계불교>의 발행인이자 광명사에서 불교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보현 법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덕 스님과 보현 법사에게는 꿈이 있다. 광명사를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심포교당으로 바꾸는 것이다. 벌써 그 꿈이 영글기 시작했다. 작은 포교당이지만 광명사는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031)978-9782 한명우 기자

"방방곡곡 화합의 장 만들터"

도법 스님, 2005 생명평화 탁발순례 시작



도법 스님을 비롯한 생명평화 탁발 순례단. 3월 2일부터 전남지역 순례에 나섰다.

3년 일정으로 전국을 순례중인 생명평화 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이) 지난 3월 2일 전남 광양시청 앞에서 '2005 생명평화 탁발 순례 출정식'을 갖고 순례를 시작했다.

출발에 앞서 순례단장 도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지역민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생명평화의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 1년간 탁발순례를 통해 농촌붕괴와 종교, 이념은 물론 계층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삶의 가치가 이해타산이 아닌 평화와 생명 가치가 되도록 지역마다 생명평화의

정신을 운동차원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탁발순례단은 지난해 지리산권, 경남, 제주지역 순례를 마치고 새해 들어 전남지역 순례에 들어갔다. 전남권 순례는 오는 7월 25일(21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 5개시 16개군을 순례하게 된다. 순례기간동안 매주 토요일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움작이는 생명평화화교를 운영한다. 한편 순례단은 이원규 시인을 팀장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동참한다. 글·사진/평양=이준엽 기자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광주 한마음선원 위문 공연

한마음선원 광주지회 어린이합창단은 지난 2월 26일 동일동산 양로원을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년소녀 합창단은 찬불가 음성공양,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추는 댄스공연에 이어 준비해간 과일과 떡으로 조촐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준엽 기자

초기경 통해 간화선 바로 알자

선우논강, 남원 실상사서 상생위원 원-원 전략 필요

"초기불교 수행법의 기본인 <대념처경>은 마음챙김(mind)의 대상을 설정하는 경으로 마음챙김이 없으면 통찰(지혜)도 생길수 없어 화두라는 대상을 놓쳐서 는 안 되는 간화선의 임장이야말로 초기 경에서 강조하는 마음챙김과 같은 선상에 있다."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은 2월 26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제 11회 선우논강(대표 철오) '대념처경으로 읽는 초기 불교의 수행'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각목 스님은 "간화선과 초기불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한국불교가 더욱 당당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적으로 양쪽 모두 부처님 제자이기에 수년 내에 간화선과 초기불교를 바라보는 잣대가 같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집중 강연에 이은 토론에서 지일 스님은 "대념처경"에서 강조하는 분석과 해체는 서구사상의 기본으로 동양의 직관과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담사 무궁선원장 선웅 스님도 "역대 조사들은 언어사랑을 떠나 직관으로 깨침에 들어갔다"며 "조계종의 정체성과 초기불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7회 진각논문대상 공고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을 확립하기 위해 '진각논문대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주 재 : 불교일반(불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 밀교일반(밀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 ◆ 진각종 교학(진각종학과 회당사상 관련)
-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 전형방법: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양식: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전형일정: • 접수 마감 - 2005년 4월 22일 (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5년 5월 21일 예정
- ◆ 당선작 및 상금: 불교분야 3편, 밀교분야 3편, 진각종 교학 2편, 각 200만원
-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소모임 공고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 관련 대학원생(석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모집 소모임: 종단 외부 2팀, 종단 내부 2팀
- ◆ 지원금 및 지원기간: 종단 외부 월 30만원, 종단 내부 월 20만원, 향후 1년간 지원 예정
- ◆ 응모자격: 대학원생 5 ~ 6명 이상
- ◆ 전형방법: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전형일정: • 접수 마감 - 2005년 4월 22일 • 발표 - 2005년 5월 21일 예정

접수처: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총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www.jingak.or.kr e-mail :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합동 49재 법회안내

생 지장 영험 도량 협원 심원사에서는 조상 영가 및 유산아 천도로 영가의 왕생극락의 길로 안내하는 합동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부 동참하시어 지장 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기도 성취 하시고 무량 대복을 누리시고 업장 소멸 하시기 바랍니다.

■ 법회 봉행 일정 ■

- 입재 : 3월 20일 일요일 (음력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 5월 8일 일요일 (음력 4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도입재일 부터 회향때까지 매주 토요일은 철야기도 법회 일요일은 사시기도법회 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기도 동참금 : 10만원 (국민은행 307-01-0589-726 예금주: 김도중)
- 심원사 증무소 033-455-3468, 5882
- 교통편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 조계사 차량문의 [덕문거사 018-357-4406, 02-715-4406] 수유리 버스터미널에서 30분 간격으로 관인행 버스 출발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출구)
- 매일 지장재일 전날(음력 17일) 오후 5시 조계사 앞에서 버스출발, 철야정진기도합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1리 72번지
증무소 033-455-3468, 5882